영주종친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2025년도 안동권씨영주종친회(회장 권중수) 정기총회가 2025년 4월 1일 11시 영주시내 축협프라자 대회의실에서 종친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영주종친회 권오철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국민의례. 태사공 시조님에 대한 망배. 안동지역 산불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염원하는 묵념을 올린 다음 참석내빈 소개. 국민추천포상 대통령표창 전수,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회장 인사. 내빈축사. 종친회 결산보고. 현안사항 토의. 오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종친회 행사에는 박성만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 장욱현 전 영주시장. 권영창 대종회장. 권영순 영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권성호 국민의힘 영주지구당 사무국장과 권무탁. 권종범. 권춘탁. 권영대. 권오종 고문 등 영주종친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원로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축하하여 주셨다

권영창 대종회 회장으로부터 국민추천포상 대통령표창을 전수받은 권용호(75). 김동조(71)씨 부부는 영주시 안정면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나라 농민부부 최초로 5년간 1억원 이상 기부하는 아너소사이어티에 2019년에 가입한 후 매년 4천만원씩 기부하여 2024년까지 총 2억원을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30여 년 동안 매년 이웃돕기 성금으로 수백만원씩 기부하고 있다.

다음은 본회 고문이며 장상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이신 권기호님이 출연해주신 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구대학교 권희준. 전북대학교 권나경. 영광여자고등학교 권세현. 대영고등학교 권보석. 현대고등학교 권오현. 대영고등학교 권우재 등 여섯 명에게 권중수회장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으로 각 50만원씩 지급하였다.

권중수 회장(왼쪽)

권중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사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총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석하여 주신 종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여 우리 종친회를 빛내주신 권용호씨 내외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수여 받은 젊은 종친들에게 앞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권영창 대종회장은 축사를 통해 임원들은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종원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대종회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당부하고 경북북부지역 대형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4.27 영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인 제34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가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연기되어 준비에 여유가 있으므로 더 알차게 준비하자고 하였다

2024년도 종친회 결산보고 및 2025년도 사업계획 심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점심으로 축협한우프라자식당에서 불고기로 정담을 나누면서 내년 정기총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총회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권오철 영주종친회 사무국장

부산등산회 정기 산행

지난 3월 29일(토) 부산종친회 산하 등산회(회장 權寧寅)에서는 태종대로 월정례 산행에 나섰다. 오전 10시에 지하철 남포동역 만남의 광장에 15명이 집결하여, 버스로 영도 태종대 입구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30분이었다. 매표소를 지나 서서히 올라가니 외국인(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의외로 많았다.

태종대는 일주도로를 따라 걷거나 출발점에 있는 다누비 열차를 이용하여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다누비 열차 승차권은 편도 2,000원, 왕복 4,000원이다. 우리 일행은 등산회란 이름대로 태종사 방향으로 걷기로 하고 출발하였다.

얼마 후 도착한 태종사는 1976년에 세운 조계종 사찰로 수국으로 유명하다. 자그마치 10여 종에 3,000여 그루나 된다고 한다. 특히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이라 역사에 비해 비교적 명성이 높다.

태종대 일주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남해의 상큼한 갯내가 코끝을 자극한다. 바다를 바라보며 조금 더 나아가니 바닷가로 내려가면 해병대원들 흉상이 있고, 위에는 바다를 조망하기 좋은 전망대가 있다. 맑은 날이면 이 전망대에서 대마도까지 훤히 보인다고 한다.

봄바람과 함께 태종대를 일주해 본 소감은 바다도 좋고, 태종대 풍광도 좋지만 봄의 정취는 뭐니 뭐니 해도 군데군데 만개한 목련이 일품이란 느낌이었다. 하산 후에는 자갈치시장에 들러 남수영구 상출 회장이 산 곰장어(먹장어) 구이로 하산 주를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권영현 부산종친회장

안동권씨 검교공파 서울종회 4월 정기총회 개최

2025년 4월 21일(월)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고봉삼계탕" 식당에서 회원 20여 명이 모임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권태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족친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가내는 무고들 하시죠. 앞으로 더욱 많은 회원님의 얼굴을 자주 뵈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상주 파조 추향제 참석 시 인원이 많으면 버스를 대절하여 추향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내용과 카카오톡 활성화로 상호간 안부와 업무 연락을 신속히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권영기 총무부장은 경과보고에서 권익재 회원의 자녀결혼식과 권오운 작가의 "봄날" 시조집을 배부하고, 앞으로 자녀 대학생 장학금 신청과 자녀 혼사가 있을 시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경과보고를 하였다. 회원들은 정기총회를 마치고 영양가 높은 고봉삼계탕과 파전으로 반주와 식사를 하면서 회원간 화기애애한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권영기 총무부장

추밀공파종회 회장단 확대 회의 개최

정간공종중 회관 마련 헌성금 1억 쾌척

추밀공파종회(회장 권오돈)는 4월 10일 10시 30분 안동권씨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추밀공파종회 회장단 확대 회의를 개최했다. 권경일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추밀공회관 마련을 위한 모금 조성과 건물매입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권경석 회관건립 추진위원장, 권오돈 추밀공파종회 회장, 권병돈 정간공종중 회장, 권정택 정헌공종중 회장, 권동원 참의공종중 이사장, 권오협 문충공종중 회장, 권병돈 정간공종중 전 회장, 권경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권오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회관 건립 모금을 오랜 기간 추진하고 있으나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경석 추진위원장은 "회관 건립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그동안 코로나와 개인 사정으로 멈짓멈짓 진행이 안 됐다.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도 없어서 끝까지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경일 사무처장은 회관마련 헌성금 입금현황 보고했다. 창화공계, 충정공계, 정헌공계 등 총 31개 종중에서 5억 9천여 만원을 헌성했고, 개인 63명이 8천 6백여 만원을 헌성하여 3월 14일 현재 6억 7천 7백여만원이 모금되었다. 특히 정간공종중에서 1억원을 입금해 주셔서 목표액 10억 중 67.7%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각 종중에 추밀공 회관 마련의 절실함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공문으로 작성하여 설득시켜야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중도 종중이지만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더 잘 될 것이고, 쫓아 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경석 추진위원장은 "회관 물건지는 금년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내년 1월경 매입하도록 하겠다. 열심히 뛰어보겠으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부고

안동 예안향교 권오진 전 전교 별세

안동 예안향교 권오진(權五璡. 안동권씨부호장공파 원로) 전 전교가 4월 15일 오전 1시 20분 별세하였다. 향년 93세. 빈소는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국화원. 장지는 경북 영천시 영천호국원.

4월 18일 오후 5시 안동의료원 장례식장에 문상 갔을 때 안동권씨 재안파종회친목회 권중근 회장 등 회원과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국장이 문상오는 등 문상객이 줄을 잇고 있었다.

국가유공자이기도 한 권오진 전 전교한테 대통령 조기가 보내졌고 서울, 대전 국립묘지는 거리가 멀어서 평소 경북 영천호국원에 묻히기를 원했다. 4년 전 사망한 부인 김노정씨가 영천호국원에 묻혀 있어서 이번 권 전교가 돌아가심에 따라 유족들은 부부를 합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060번지에서 태어난 권오진씨는 어릴 때 서당에서 글을 배웠으며 살아계실 때는 영남의 한학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권 전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예안향교 전교로 근무하고 안동권씨부호장공파 원로로서 영남지방을 순회하면서 보학강좌를 하기도 했다. 평소 한학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인자하여서 각 문중 및 유림 대표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장례식 때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등 10명이 조기를 보냈으며 각계각층에서 보낸 대형조화가 93개에 이르고 있다.

권 전교 슬하에 3남 3녀가 있으며 둘째 아들 기윤씨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기도 하다.

권영건 보도부장

동정

▲ 권석민(權錫玟, 좌윤공파, 40世) 후손

이 제79회 전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의대에서 지난 3년간 박사과정을 밟은 권석민 후손은 운곡서원, 경주종친회 권구훈(權九焄) 부회장의 맏아들이다.

▲ 권영관 전 추밀공파 화산부원군 목사공 종중 회장이

2024년 10월 30일 제8회 2024 서울특별시 문화원 엑스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시정발전과 지역문화 육성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권영관 전 회장은 2004년 11월 1일 ㈜진솔전기안정공단 재임시 전력기술 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이해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 권성진(복야공파, 36世) 전 마창진 청장년회 회장이

지난 3월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선출되어 4월 16일 창원 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권 이사장은 인제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창원시 생활체육회 이사,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안전전문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이다. 경상남도 도지사 표창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권혁선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수석교사가 4월 4일

제10대 전국 중등 수석교사회장으로 취임했다. 권 회장은 2020년 전라북도 중등 수석교사로 임용된 뒤, 전국 수석교사회에서 연구국장과 정책국장을 역임했다. 권 회장은 일반고등학교 근무 시절부터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수석교사는 수업 전문가로서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등 학생 중심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권택윤 전 농업진흥청 기술협력국장

이 4월 16일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현장전문교수로 취촉되었다. 권 교수는 세계 식량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진과 안전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작물다양성재단(Crop Trust) 기부자위원회'에 38개 회원국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되어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 권혁수 ㈜민속엘피씨 대표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시와 의성군 주민을 위해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기부했다. 민속엘피씨는 농업회사법인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육성 및 채용과 나눔과 교육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작년 '제57회 납세의 날'에는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기도 했다. 대구시 군위군 군위읍에 위치한다.

▲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이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지난 2월 위촉되었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권 원장은 국제평생교육강사연합회 회장, 대통령직속인국민정책참여단 단원, (사)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및 국제서비스협회 전문교수, 전 대구교육청 인성교육과 인문학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등을 역임했고, 현장에서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한 전문강사로 유명하다. 현재 '안동권씨 종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제57차 재부 감정공 종친회 정기총회

안동권씨 재부 감정공 종친회(회장 해강 권정수)가 2025. 3. 20. 오후 6시부터 부산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회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와 시조님께 망배를 올린 다음, 참석 종회원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한 뒤에 회장 인사와 경과보고, 감사 보고에 이어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토의를 진행하였다.

해강 회장 주재로 진행된 토의는 결산 승인 후에 임원 선임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지난해 1년 유임한 집행부를 임기 2년인 회칙에 따라 1년 더 유임토록 의결하였으며, 앞으로 감정공 추향 때에는 개인 부담 없이 종비로 교통비(대절 등)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참석자 대부분인 20명이 십시일반으로 협찬에 동참하여 총 200여 만 원의 찬조금을 회사하여 종사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해강 회장이 기념 타월 30매를 증정하였다. 회의 후에는 오보쌈 식당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약주와 만찬을 나누며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고로 감정공 선조는 고려 좌정승 문탄공(시호, 휘 한공)의 증손으로 시조 후 16세이며, 정3품 군자감정을 지내셨고, 합천에 처음 터를 잡은 분으로 후손이 널리 번창하여 서부 경남 일원과 부산 등지에 널리 퍼져 있다.

재부 감정공 종친회 총무 권채영